

고 양 이 傳 染 痘

趙俊行

清雲家畜病院

韓國에서도 人口의 增加는 都市集中的生活을 促進하고 文化施設이 比較的 고루 갖추인 大都市에서 살기를 慶하는 國民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음은 서울市民이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狀況이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에서 살다보니 自然히 마당을 必要로 하는 犬公들은 여러 가지 事由로 서서히 飼育頭數가 感少되고 反對로 飼育場所의 크기에 拘碍받지 않는 小動物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애완소동물 중에서도 고양이의 增加는 여러 가지 理由로 他動物에 比해서 눈에 띤다.

요즘 저의 病院에도 고양이 환적이 많아져서 어느 날에는 1日 總患畜數의 半을 輪番 넘는 數의 고양이가 治療를 받을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動物을 기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개의 병은 한 가지인 줄만 아는 사람이 간혹 있어 開業獸醫師를 웃기는 일이 있는 이때一般人에게 고양이의 여러 가지 병을 說明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나 開業獸醫師가 경영하는 病院名이 이미 그 명칭이 動物病院으로 바뀌었고 動物病院의 治療對象으로 고양이라는 동물도 들어 있으니 우리 開業獸醫師는 고양이의 새로운 병을一般人보다 먼저 알아두어야 되겠다. 그러나 아직 韓國에는 고양이에 대한 專門書籍이 없어서 우선 급한대로 주위에 있는 책 몇 권을 바탕으로 고양이의 傳染病 몇 가지를 엮어 본다. 이 글을 계기로 하여 여러 會員들의 더욱正確한 고양이 병에 대한 研究와 發表가 있기를 바랍니다.

貓傳染性腸炎 : 이 病은 새끼 고양이에 많이 오는 傳染病으로 이 病에 걸리면 거의 100%에 가까운 致死率을 나타낸다. 美國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病을 汎白血球減少症이라고 부르고 있다. (全身에 널리 病變이 생기는 病)

이 病에 일단 걸리면 거의 죽는 병이기에 고양이를 주로 번식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外國에서는 이 病을豫防할 수 있는豫防注射藥이 있고 美國에는 지금 4,000頭쯤으로 추정되는 고양이의 근 90%가 이豫防注射藥으로 接種시키고 있다고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만만치 않은 고양이의 增加와 國民所得의 增加는 멀지 않은 날 이 病의豫防注射藥을 生產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신 接種이 널리 普及되어 있는 美國에서는 不治化된 백신이나 生毒 백신 등 5가지의 다른 type의 18種의 백신이 8個의 製藥會社에서 市販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거의 같은 狀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生產은勿論 안 되고 있으며 外國으로부터의 正式輸入도 없으나 단지 이웃 日本에서는 백신의 安全性이 높고 그 效果가 뛰어난 組織培養에 依한 포르말린 不治化 백신만이 輸入되어 市販되고 있다. (現在 日本에서 年間 4,000萬頭以上 接種되고 있는 개홍역 백신에 比해 1977年 1年間의 統計는 約 18,000頭分만이 使用되었다.)

이 백신도 개의 디스템퍼(Distemper) 백신 같은 補給水準이 된다면 猫傳染性腸炎으로 죽는 새끼 고양이도 거의 없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病이 새끼 고양이에는 致命的인 病이라고 해서 큰 고양이에게는 걸리지 않는다는 保障은 없고 새끼 고양이 때 이 백신을 接種하였어도 그後 몇년이 지나면 그免疫力도 차츰 쇠퇴되기 때문에 現在 각國에서는 每年 1回씩 追加接種을 받아서 確實한 免疫이 계속되게 하여 그 고양이가一生 동안 猫傳染性腸炎에는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한다.

이 病原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發病하게 되면 이 病原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藥은 아직 없으며 단지 여러 種類의 抗生物質을 利用해서 2次的으로 侵入하는 細菌의 活動을 抑制하고 水分의 缺乏에 依한 脱水狀態를 輪液으로 補充하는 對症療法 등으로 早期에 充分한 看護를 할 수 있다면 성숙한 고양이에서는 20% 程度의 致死率로 大部分 回復시킬 수가 있다.

貓의 傳染性呼吸器疾患：흔히 고양이의 感氣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사람에서의 感氣와 같이 여러 가지 病原體에 의한 傳染性의 呼吸器疾患을 包含하고 있다. 英國의 어느 學者는 고양이의 infulenza라고도 부르고 있으나 이 이름은 사람에서의 infulenza virus에 의한 痘파는 別個의 것인가에 美國의 學者들은 이런 이름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

또 clamidia라는 微生物은 貓 clamidia 肺炎을 유발시 키며 이 微生物은 이미 35年前에 美國에서 發見된 것이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그 存在를 確認하지 못하였으며 美國에서도 傳染性呼吸器疾患의 一部(5~10%)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백신은 단지 후로움研究所 1個所로부터 탄의 胎兒를 利用한 生백신이 市販되고 있을뿐으로一般的으로 特殊한 고양이 외에는 그 接種이 普及되어 있지 않고一部分의 고양이 나, 展示會 등에서 感染의 機會가 있는 고양이에만 利用되고 있는 現狀이다. 혹 이 病에 걸려도 이것이 確實하게 이 痘症이란 診斷만 붙으면 테드라싸이크린이나 크롬회니콜 등의 抗生物質이 有効하기 때문에 早期에 治療할 수만 있으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 단지 고양이 clamidia로써 사람에게 結膜炎을 일으킨 例가 報告되어 있기 때문에 人獸共通傳染病이라는 點에 對해서는 關心을 가져야 한다.

바이러스에 依한 감기는 herps virus로 오는 고양이 바이러스性鼻氣管炎과 Calici virus로 오는 고양이 calici 바이러스感染症이 있다. reovirus感染症이라는 감기도 있으나 눈물이 많아지는 가벼운 結膜炎이 보일 程度로서 거의 問題되어 있지 않다.

앞에 말한 2가지는 典型的인 고양이의 流行性感氣로서 가벼울 때는 어느 程度 症狀에 差가 있으나 조금이라도 病狀이 進行하면 臨床的으로는 거의 區別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물같이, 후에는 이것이 膜性의 鼻汁이 되고甚한 재채기나 기침을 하고 마치 목에 骨片이라도 끼인 것 같이 많은 침을 흘리고 많은 눈곱이나 膜性의 눈곱이 나오는 上部氣道의 疾症症狀이甚한 것이 貓 바이러스性鼻氣管炎의 特徵입니다.

이 病이 계속되면 눈이나 코의 症狀은 別로 눈에 뛰지 않고 입 안의 혀나 硬口蓋, 鼻孔에 潰瘍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 呼吸困難이나 急激한 衰弱 등 肺炎症狀을 나타내는 것이 貓 calici virus感染症의 特徵이다.

그러나 病勢가 進行되면 貓 바이러스性鼻氣管炎이 肺炎을 일으키거나 혀에 潰瘍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兩疾患에 對한 백신을 最近에나 겨우 開發에 成功한 것으로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利用되고 있지 못하나 美國에서는 별씨 6個社가 유럽에서도 이제는 몇個 製藥會社에서 市販하고 있으며 퓨리나社의 Paterson 博士의

이야기에 의하면 沈白血球減少症(貓傳染性腸炎)의 追加接種에 若干의 經費增加로써 貓 감기 백신과의 混合 백신이 接種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로 別途로 貓 감기 백신만을 注射하는 手苦가 없이 貓感氣 백신의 接種은 急速히 普及되고 있는 狀態로써 고양이의 流行性感氣는 我們 나라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痘으로서 簡便 經驗한 開業獸醫師도 적지 않을 것이며 以後 어떤 經路를 通하든지 백신의 輸入이나 生產이 要望된다.

貓傳染性腹膜炎：이 病은 貓에 關한 研究가 大端히 發達되어 있는 美國에서도 지금으로부터 12年前인 1966年に 우루푸·구리이스마라는 學者가 처음으로 報告한 것으로서 熱이 생기며 점차 마르고 이는 사이에 腹腔이나 胸腔에 물이 고여 오는 臨床症狀를 나타낸다고 하며 그 後에도 英國, 南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등에서 發見되었고 이웃 日本에서는 1970年に 東京大學의 小西信一郎가 처음으로 이 病의 存在를 學會에 報告하였으며 이 報告에 의하면 東京周邊에 12例의 自然感染例가 發見되었고 이 중 3例는 다른 고양이에 옮기기는 人工感染에 成功하였고 그 후 1972年에는 大阪府立大學의 小谷猛夫 등이 關西地方에도 이 病이 있음을 確認하였다.

本症의 病原體는 corona virus群에 屬하는 바이러스이며 本病에 걸린 고양이의 組織을 感受性을 가진 고양이에게 接種하는 것에 따라서 人工的으로 걸리게 할수는 있으나 아직도 人工感染이 可能한 狀態에 까지 精製 分離는 되어 있지 않다. 自然界에선 어떤 經路로 傳染하는지는 잘 알수 없으나 바이러스를 含유한 오줌으로 汚染된 飲食物을 먹든지 이것을 훑거나 病을 가진 고양이와 싸움하여 물리든지 벼룩이나 진드기가 中間宿主가 되어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또한 이 病에 對해서 最近 여러 가지로 알게 되었는데 첫째 病名과 같이 腹膜炎을 일으키고 腹腔에 물이 고이는 型은 全體의 半人以下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고 那, 이 病에 걸려서 發病한 것 중에서 約40%가 腹膜炎을 일으키고 또 10%가 胸膜炎을 일으켜서 胸腔에 물이 고인다. 이를 合하면 50%가 되는 全體의 半이 濕性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 半의 病性은 乾性型 혹은 質實臟器型이라고 해서 눈이나 腦나 이것을 싸고 있는 體膜 등의 神經系가 侵犯되어 腎臟이나 肝臟 등 主要한 臟器에 여러 가지 病變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型은 臨床的으로 診斷하기가 大端히 어렵고 고양이가 죽은 後에 解剖를 하여 자세히 調査를 하여야만 겨우 알 수 있는 까다로운 病型이다.

그러나 最近에는 血液検査에 의해서 이 病에 걸려있는가 어떤가 혹은 以前에 걸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 美國에서는 民間의 檢查機關이 有料(10弗)로서 이런 檢查를 하여 주게 되었다. 그結果 의외로 많은 고양이가 이 病에 걸렸던 것이 나타났고 이것은 一般人들이 症狀를 모르고 있을 때 病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것을意味한다.

以前에 tylocin이라는 抗生物質과 副腎皮質 스테로이드를併用하여 몇例의 本症이 治癒되었다는 報告가 나온 깊도로 일단 本病의 症狀이 생기면 100% 治療不能으로 알려졌으나 本病에 걸렸어도 症狀이 나오는 것은極히 一説의 猫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病全體로 볼 때 그리 致死率이 높은 病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一旦發病하면 무서운 病이라는 것에는 變함이 없다.

더욱 이 病과 백신에 의한 病인 猫白血病과의 關連性도 注意되어 있다.

猫白血病도 猫傳染性腹膜炎과 같이 알고 모르고 걸려서 나아버리는 것이 大部分으로 極히 一部만이 發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단 發病하면 治療法이 없고 사람에게도 傳染하지 않는가 의심되는 病이기 때문에確實하게 猫白血病의 本病이 있을 때에는 다른 猫에게의 傳染의 危險도 생각하고 安撫死를 시키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 猫白血病 바이러스는 全身의 免疫力を 弱하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猫傳染性腹膜炎과 같은 바이러스性的 病에도 걸리기 좋게 한다.

貓傳染性腹膜炎은 猫뿐만 아니라 사자, 호랑이, 치이타 등 猫屬의 野生動物도 이 病에 걸린다. 그러므로 病原 바이러스가 純粹한 型으로 分離되어 있지 않기에 백신 개발에는 成功하지 못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G. T. wilkinson 博士의 經驗에선 어느 고양이가 本病으로 죽은 후 4個月이나 지난 후에 같은 집 고양이가 發病된例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汚染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汚染地에 새롭게 배리고

오는 고양이는 적어도 半年 정도의 새를 두고 가져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바이러스學的研究에선 이 바이러스는 細胞 밖에 나오게 되면 그리 抵抗力이 대단하지 않아서 포르말린을 使用하는 것이 가장 效果의이다.

貓傳染性貧血: 이 病은 사람에 오는 마라리아와 같이 *Hemobaltonella ferris*라고 불리고 있는 一種의 原虫이 赤血球에 寄生하여 이 赤血球를 破壞하여 貧血을 일으친다. 日本에서는 1960年 日本獸醫畜產大學의 研究陳述이 이 病에 對해 報告하였고 그 後 1960年에 日本獸醫師會雜誌에 北海道大學의 연구진들에 의해 6例에 對해 서 상세하게 發表되었으며 지금 日本各地에서 發見되고 있다.

그러나 이 病原인 原虫의 檢出은 대단히 어려운데 이 病에 걸렸다고 하여도 原虫이 血液에 나타나는 時期가 大端히 짧고 때에 따라서는 잘 發見이 되는 때와 여간해서 보이지 않은 때가 생견는데 最近에는 紫外線을 비치면 融光을 내는 特殊한 色素를 가진 抗體를 原虫에 결합시키는 것에 의해서 比較的容易하게 檢出하는 方法이 運用되게 되었다.

단지 이 方法은 一部의 研究機關에서나 할 수 있는 檢查方法으로 一般開業獸醫師가 應用 못하는 것이 缺點이다.

또 北海道大學에선 규우무스 試驗이란 特殊한 血液試驗法을 利用하여 좋은 結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臨床의으로는 元氣와 食慾이 없어지고 貧血이 있다고 하는 평범한 症狀뿐이기 때문에 病初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서 病의 發見이 늦어지거나 자세히 觀察하면 貧血과 同時に 血液病에 關連성이 깊은 脾臟이 부어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것이 가장 有力한 이 病의 徵候가 된다.

治療는 外國에선 抗生物質이 効力を 가진다고 하나 日本에서는 그 例가 無効이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3-1, 전화 서울 73-9584)